

대만제과협회와 교류의 장(場) 마련

Siba 2005 홍보 설명회 개최



(사)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는 국제전시연맹(UFI)의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해 명실공히 국제전시회로 거듭난 Siba 2005 홍보의 일환으로 해외를 방문해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Siba 2005 해외 참관단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김홍연 부회장, 김봉수 기획분과위원장, 이상태 대구광역시지회장 등 4명의 홍보사절단을 구성한 협회는 타이페이 대만제과협회와 대만가또협회, 대만제과학교를 방문해 초청 설명회를 갖고 Siba 2005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20년 동안 단절된 한국과 대만간 교류의 물꼬를 트고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홍보사절단은 대만에서 발행되는 제과전문지 <타이완푸드뉴스> 잡지사 대표를 만나 월간 〈베이커리〉와의 기사 교류 및 Siba 2005의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평균 22~25% 저렴한 공동구매사업 실시

원가 부담 줄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수여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원가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률을 높여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과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각 지회와 광역시지회, 도지회에서 해당 지부의 주문량을 파악해 입금한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주문하면 전국 각 지회 및 지부까지 무료 배송이 이루어지고 각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공동구매 품목은 시중가보다 평균 22~25% 저렴해 회원들에게 비용 절감의 혜택을 부여한다. 매달 품목을 돌아가며 바꿔 기한제로 운영하는 공동구매 품목은 주로 리큐르, 캔, 견과류 등의 품목이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5일까지 마감한 제 1차 공동구매에는 모나크 프리미엄골드드럼, 모나크 트리플 셙, 디중 커쉬, 모나크 커피, 그랑 모나크, 밤 다이스 등 모두 6개 품목이 선정됐다. 2차 공동구매 품목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2005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제과점영업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및 상임위원회의 임원 선정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지난 8월 12일 (사)대한제과협회회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0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김성환·김옥중·박찬희·유현식·주재근 부회장 등 회장단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과점영업 자격증제도를 구체적으로 입안하기 전에 자격증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의견을 확정한 후 오는 9월 2일에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해 회원들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긴급 소집했다. 이날 이사회를 주재한 김영모 회장은 “업계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토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하며 이사회를 시작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사)대한제과협회회관 4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2005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감사의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이사회에서 정관 규정이 바뀔 때마다 워드 문서로 제규정집을 만들어 각 지회·지부와 이사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실적 보고에서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 제과점영업 업종 독립, 기술발전기금 모금 방안,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이하 Siba 2005) 출품 배정에 대한 사항, Siba 2005 홍보세미나, 전국학생제과경연대회, 대만을 방문해 실시한 Siba 홍보 설명회 등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정일석 사무총장의 의결주문으로 3건의 안건이 본격적으로 상정된 이사회는 각 안건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사회 개최의 핵심 안건인 제과점영업 자격증제도 도입을 놓고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자격증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불거진 자격증제도는 국가가 정하는 자격증을 따야 제과점을 창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론할 예정이다.

또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분야별 상임위원회의 임원이 확정됐다. 제정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환 부회장, 재정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박찬희 부회장, 운영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유현식 부회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과 간사, 소속 위원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요청에 의거해 안건이 상정된 정관 제 19조(정족수)의 회의 시 의장 결정권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 승인했다.

Local News

News

담당_홍선화

성북지회

기존업주 위생교육 개최



성북지회(지회장 박정만)는 지난 7월 29일 성북구 청 5층 대강당에서 기존제 과점 영업주와 휴게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기존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북구청 위생과 김혁 과장과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최옥선 씨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김혁 과장은 식품위생 및 관계법령을 설명하면서 원산지 표기, 재료유통기한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했다. 최옥선 씨는 친절과 봉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과업의 고객 만족 마케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만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로 고객이 믿고 찾는 제과점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남원시지부

하게 단합대회 개최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정희)는 지난 8월 17일 남원시 주천면에 위치한 원천초등학교에서 고문, 임원, 회원 모두 참여해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희 지부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해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오랜만에 지회 사무실을 벗어난 회원들은 공놀이로 체력단련을 하는 한편 남원시 제과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며 지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김정희 지부장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베이커리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진 만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제품 개발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Prism

안양시지부

오랜 세월 묵묵히 나눔 사랑 실천



안양시지부 (지부장 남기석)가 보육원 원생, 비행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펴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안양시지부는 2000년부터 소년원에 들어온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고봉정 보통신증·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사랑의 빵 300개와 팥빙수 305개를 전달했다(사진).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빵 전달 행사에는 남기석 지부장을 비롯해 김춘호, 백재찬, 김한철, 최현웅, 박광선, 유상복, 김영진, 이종희 이사 등 임원진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남기석 지부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선행교정을 위해 애쓴 공로로 서울소년원 김상호 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안양시지부의 봉사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달 안양보육원을 방문해 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빵만들어주기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또 안양 관내 생일을 맞은 소년, 소녀가장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와 함께 정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지부는 지난 6월 23일 안양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존업주 위생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위생교육은 안양시청 위생과 허문숙 계장, 호서대 정용문 외래교수의 강의로 보건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생교육에는 문홍대 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산시지부

단합대회 · 기존업주 위생교육 개최

아산시지부(지부장 정현봉)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송악면 외암리 위치한 강당골계곡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왼쪽 사진). 이날 단합대회에는 정현봉 지부장을 비롯해 지부 임원과 회원 등 25명이 참석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안과 아산시지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돈독한 친목을 다졌다.

한편 지난 7월 5일에는 아산시지부 사무실에서 기존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오른쪽 사진). 이날 교육은 시청 위생과 허문숙 계장, 호서대 정용문 외래교수의 강의로 보건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생교육에는 문홍대 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